

초등 입학 대상자 사상 첫 2만5000명 '붕괴'...5년 연속 감소

광주 1만3050명·전남 1만1689명... 4~5일 예비소집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예비소집이 4~5일 시행되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국·공립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 수가 사상 처음 2만5000명 이하로 떨어졌다. 저출산 등에 따른 학생 수 감소 영향으로 최근 5년 사이 계속 줄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를 대상으로 국·공립 초등학교 152곳에서 4~5일 이틀간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예비소집을 한다고 3일 밝혔다.

광주지역의 국·공립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저출산 등에 따른 학생 수 감소 영향으로 최근 계속 줄고 있다. 지난 2020년 1만3619명에서 2021년 1만3401명, 2022년 1만3264명 등으로 지속해서 감소하다가 올해는 1만3050명으로 또 떨어졌다.

취학 대상자는 입학 전 10월 1일 기준으로 주민센터에서 통보받은 수치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 입학하는 학생 수는 보통 취학 대상자의 90% 내외

다. 이에 따라 올해 취학 대상자 중 3월에 실제 입학하는 1학년 숫자는 1만300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시교육청은 예상하고 있다.

전남 역시 취학 대상자가 급격히 감소했다. 올해 1만1689명으로 1만2000명에도 못 미쳤다.

이 같은 경향은 실제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로도 확인된다. 전남지역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2018년 1만5817명이었던 것이 2019년 1만5971명으로 소폭 상승했다가 2020년에는 1만4806명으로 줄었다. 급기야 2021년에는 1만3853명으로 1만3000명대로 밀려났으며 지난해에는 1만3815명으로 감소세가 여전하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오후 4시 30분에서 7시 30분까지 했던 예비소집 시간을 오후 2시부터 7시 30분까지로 늘려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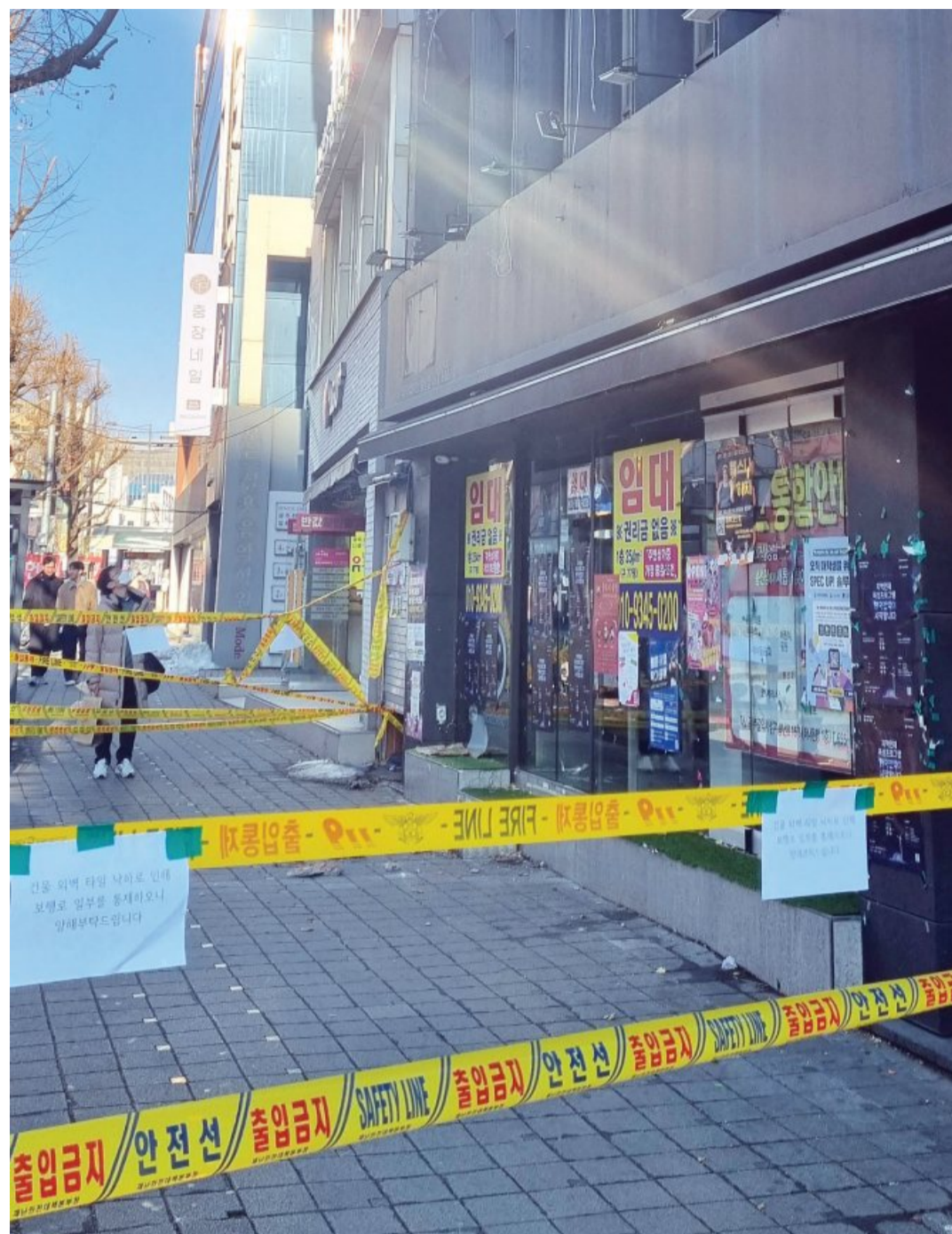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대면·비대면 참여 방식은 입학생 규모와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에 따라 학교별로 다를 수 있다"며 "취학아동과 보호자는 예비소집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학교로 문의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공지, 안내 사항을 숙지한 후 예비소집에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비소집일 이전 학교에 문의해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학교에 취학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광주·전남교육청은 예비소집 기간 지원청, 경찰청 등과 적극 협력해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유선 연락, 가정방문, 학교 방문요청 등의 방법으로 소재를 확인하고, 그런데도 소재 파악이 어려울 때는 경찰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건물 외벽 외장창

광주시 동구가 3일 오전 10시께 황금동 한 건물의 외벽 타일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추가 사고방지를 위한 조사와 수리 등의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도로를 통제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0~1세 부모급여 매월 25일 지급

오는 25일부터 만 0세 아동과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원과 월 35만원씩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확대된다. 부모급여는 이달부터 신청 계좌로 매달 25일 입금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영아수당' (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에서 이름이 바뀌고 지원금액을 늘린 '부모급여'를 이달 말인 25일부터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신청은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보육형태와 상관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이 큰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받게 된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기존 영아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새롭게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전남 교통사고 사망 급감

지난해 200명 역대 최저 5년간 48.3% ↓

전남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시설 개선, 위험 도로 정비 등 전남도의 시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0명으로 교통사고 통계를 시작한 1977년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교통사고도 2021년 8732건에서 지난해 8346건으로 줄었다.

전남도는 지난 2017년 사망자가 387명으로 급증하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책을 추진하면서 법도인 의식 개선과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에 1940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해 왔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와 사고에 따른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8기 원년인 올해부터는 고령자와 보행자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과 첨단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시즌2'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5년간 약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 ▲농기계, 개인형 이동장치 등 고위험 이동수단 집중관리 ▲교통약자 우선배려 정책 등 더욱 촘촘한 교통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임만규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즌2에서는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전남, 행복한 도민'을 기치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통안전 예방 시책과 다양한 교통안전 시설 확충 등으로 도민 안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중학생 10명 중 4명 "장래희망 없어요"

광주지역 중학생 10명 중 4명이 장래희망이 없고 이마저도 학교보다는 대중 매체나 SNS를 통해서 장래희망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2022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지역 학생 응답자 중 초등학교생 13.8%, 중학생 45.7%, 고등학교생 25.7%가 희망하고 있는 직업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은 희망 직업이 없는 이유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몰라서'를 제일 많이 꼽았으며, 초등학교생 42.4%, 중학생 51.0%, 고등

학생 52.0%가 이같이 답했다.

또 대중매체를 통해 희망 직업을 알게 됐다고 답한 학생들은 초등학교생 28.5%, 중학생 32.8%, 고등학교생 38.8% 수준이고, SNS를 통해 장래희망을 찾았다고 답한 학생은 초등학교생 26.3%, 중학생 47.4%, 고등학교생 51.5%로 집계됐다. 반면 학교 선생님을 통해 희망 직업을 찾았다고 답한 학생은 8.0%(초등학교생), 18.0%(중학생), 20.7%(고등학교생)였고 학교에서 진행한 진로체험을 꼽은 학생은 16.2%(초등학교생), 10.2%(중학생), 5.6%(고등학교생)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세열굴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등 국정과제 추진"

최용욱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장

최용욱(사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본부장이 2일 취임했다.

최 본부장은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의 27개 지사와 15개 출장소를 총괄하게 된다.

최 본부장은 여수시 출신으로 지난 1989년 공단에 입사해 수원, 여수, 전주지사장과 본부 경영지원실장, 건강보험연구원 선임실장,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최 본부장은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등 공



단 관련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고 제도 안정에 최선을 다해 국민들의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다"며 "즐겁고 활기찬 조직 문화를 만들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www.kps.co.kr

Green Energy와 함께, 사랑받는 지속성장 기업 한전KPS!

세계 No.1 전력설비 정비산업 Grand 플랫폼 기업, 한전KPS가 ESG 경영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p>E</p> <p>환경 Environment</p> <p>지속성장을 위한 그린에너지사업 확대</p>	<p>S</p> <p>사회 Social</p> <p>국민 체감·업과 연계된 사회적 가치 창출 선도</p>	<p>G</p> <p>지배구조 Governance</p> <p>국민에게 신뢰받는 윤리·투명·안전경영 강화</p>
--	---	---



한전KPS의 역할

한전KPS는 국가경제의 핵심 기반산업인 전력산업 최일선 현장에서 발전 및 송전설비에 대한 무결점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전KPS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고객사 전력설비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